

농촌체험 마을경관의 보전가치평가 연구*

A study on conservative Value Evaluation for landscape of the Rural Tourism villages

손호기** · 김상범***

Ho GI Son · Sang Bum Kim

Abstract

This paper researches conservative value evaluation of rural tourism villages with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focusing on visitor to offer the guide fo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in landscape of rural tourism villages based on critical consciousness for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by regional development.

The option value is 37,624won(36.7%), the bequest value is 34,856won(34.0%), existence value is 30,073 won(29.3%), and overall average willingness to pay of conservation value is 102,517won(100.0%) for conservative value of sesim-village in Kyung-Ju. The results show that landscape of rural tourism villages has great value historically and culturally.

In conclusion, it suggested that planners and staffs of rural tourism villages recognize that it is positively necessary to be considered not only multiple landscape index but also conservation policy in process of development planning in rural tourism villages.

* 본 연구는 2010년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연수과정사업(농촌경관 보전 및 활용기술개발 연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연구원. e-mail : hogi9267@hanmail.net.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e-mail : landlife@korea.kr.

주요어(key words): 농촌체험마을(Rural Tourism Villages), 가상적 가치평가방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보전가치(Preservation Value), 선택가치(Option Value), 유산가치(Bequest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1. 서론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있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자유시간 증대,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제도의 변화, 농업기술의 발달과 의료기술 성장에 수반되고 있는 농촌지역 시설의 고급화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이 농촌지역의 개발과 보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수십 년 동안 심각한 구조적, 경제적 문제를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미 간 FTA협상체결로 인해 농촌사회는 더욱더 경제적 어려움으로 농업·농촌환경이 대내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산발적인 농촌공간개발에서 벗어나 유기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의 훼손, 지역성·전통성의 상실(김상범외, 2006) 등이 문제시 되어 가속화 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업 외의 분야에서 농촌사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모색으로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농외소득원개발사업촉진법(1983)을 제정하면서 농외소득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농촌민박사업, 주말농원사업, 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마을 및 지역단위 활성화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농촌의 농외소득증대는 물론 쾌적한 농촌의 정주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2001년 5월 농외소득증대중장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관광을 향후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채택하고 그 일환으로 2002년부터 마을단위사업 시작하였으며, 그 중 농촌진흥청에서는 경남 남해군 다랭이마을, 경주 세심마을 등을 시작으로 2년 동안 보조비 2억 원(국비 1억, 지방비 1억)을 지원받아 농촌전통 테마마을로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나란희, 2010:2). 이러한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수립했다는 특징으로 처음보다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으며 특히, 남해군 다랭이마을은 농촌경관의 보전·유지로 인해 방문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찾는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인 경주 세심마을은 2002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어 최근에는 전통성과 문화성을 토대로 한 농촌전통문화와 역사탐방, 전통놀이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농촌체험마을 경관의 보전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경주 세심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촌체험마을의 만족, 이용형태 및 문제점 파악과 농촌체험마을 경관 보전가치(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를 추정하여 농촌마을 단위사업에서 농촌경관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농촌체험마을경관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이론적 고찰

2.1. 농촌체험마을의 이해

농촌체험마을은 농촌지역의 풍부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토대로 농촌 문화체험 및 농업과 연계하여 보전·개발함으로써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농촌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의 장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각 부처별 추진하는 마을단위 농촌체험 관광개발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은 ‘농촌전통테마마을’, 산림청은 ‘산촌생태마을’, 행정안전부는 ‘아름마을가꾸기’ 등 도시의 방문객들을 위한 도·농교류 및 휴양사업과 연계하여 마을 공동 소득의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으로 농촌관광 잠재수요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측하며, 조재환외(2003)에 따르면 농촌관광 참가 횟수 조사에서 도시민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2.39회를 계획하고, 1년간 농촌관광 참가 횟수가 1인당 0.46회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농촌관광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 부처별 농산어촌 체험마을사업의 현황

체험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어촌체험 마을	농촌전통테마 마을*	산촌생태마을	아름마을 가꾸기**
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행정안전부
현황 (2009년)	433마을	263마을	169마을	117마을	23마을
사업 내용	도시방문객 유치를 위한 체험기반시설 조성 등	안내센터, 주차장 체험어장 등 어촌체험관광기반시설	마을고유 전통을 발굴하고 체험장 등 조성	산촌체험시설, 청정임산물 직거래를 위한 생산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시설	도시민에게 농촌체험 기회제공, 주민에게 소득증대, 지역활성화
사업비	2억(2년간, 국비·지방비 50%씩)	5억이상(국비·지방비 50%씩)	2억(2년간)	10~16억(3년간)	마을당 10억원(교부세)+지방비

참조: 4대강 물길따라 흐르는 농촌희망 급수강촌만들기, 농림수산식품부(2009) 제작성
 * 2009년으로 마감된 사업임, ** 2005년으로 마감된 사업임

농촌경제연구원(KREI, 2007)¹⁾의 농촌관광 수요전망에 따르면, 국내 여행총량에 광의적 농촌관광²⁾과 협의적 농촌관광³⁾의 비중을 토대로 2013년까지의 농촌관광수요를 전망한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농촌관광객 수요전망

(단위 : 천 명)

구분	국내여행 총량(A)	광의적 농촌관광(B)	비중 (B/C)	협의적 농촌관광(C)	비중 (C/A)
2007	269,487	45,187	16.7%	5,971	2.2%
2010	278,478	57,080	20.5%	8,013	2.9%
2013	287,769	72,105	25.1%	10,753	3.7%

참조: 4대강 물길따라 흐르는 농촌희망 급수강촌만들기, 농림수산식품부(2009)

농촌체험 관광마을이라 하여 ‘마을단위 중심으로 농촌체험관광경영이 주체가 되어 농촌마을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농촌문화를 바탕으로 도시민의 심리적 귀향욕구와 농촌체험 여가활동을 충족시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농촌문화와 농가소득증대를 꾀하는 마을’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김나영, 2010). 농촌체험관광은 농촌지역의 자연적, 사회문화적 관광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제된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매력물로 개발·관리하여 지속적으로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험관광형태 또는 농촌다움을 핵심으로 상품화한 관광으로, 관광활동 자체가 하나의 체험이기 때

- 1) 한국관광공사('96)가 추정한 연도별 관광객 증가수와 이회찬 등이 연구영역에 의해 추정된 증가수를 산술평균하여 결과를 KREI가 조사한 기준년도('07년)의 관광객 수로 나누어 연평균 증가율을 설정함(농림수산식품부, 2009:355).
- 2)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 주민들 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으로 보는 것.
- 3) 농어촌 마을을 방문하여 체험행위에 국한하여 전망하는 것.

문에 모든 관광을 체험관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체험관광은 농촌체험마을을 차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농산물의 생산과 생산과정의 상품화라는 농촌관광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어떤 농촌마을이든 농산물, 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농촌적 생활양식 등의 농촌성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농촌마을이 농촌체험관광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며, 도입이후 성공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가와 관련 되는데, 특히 관광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은 지역자원을 다양하게 변형한 결과로서, 이것은 농촌체험관광을 추진하는 수많은 농촌관광마을들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고선영, 2008). 결국 농촌체험마을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특유한 자연환경, 역사, 문화, 풍토 등을 기반으로 한 농촌체험마을마다의 정체성을 가진 농촌어메니티자원 개발이 요구되며, 이는 여유, 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고도의 서비스 요소인 하드웨어적 시설과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계획하여 조성하여야한다. 물론 농촌관광개발사업마다 지원되는 시설물과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농촌체험마을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그 지역의 농촌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개발이 우선과제로 선행되어야 한다.

2.2 보전가치에 대한 이해

농촌체험마을경관과 같은 환경적 공공재 성격의 자원은 크게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용가치는 현지의 자원을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로서 그 재화에 지불되는 시장가치(교환가치)와 소비자잉여의 합이며, 비이용가치는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장래의 이용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가치로 이를 보전가치로 부르고 있다(김사현, 1997). 자연경관이나 옥외위락서비스는 자연의 보존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의 파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개발정책과 상충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관광이나 관광자원화 방안은 자연환경의 최적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발과 보존을 얼마나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 해결이 필연적이다. 미국의 과학적 조림운동의 선구자인 핀초트(Gifford Pinchot)는 “보존(保存, conservation)이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높은 효용을 줄 수 있도록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 하였으며, 이는 개발과 자원의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호우(Charles Howe)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 개발(development)과 보전(preservation)⁴⁾이 모두 자원을 보존(conservation)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김사현, 2007, 손호기, 2008). 비이용가치(non-use value, 보전가치)는 수려한 자연경관, 야생 생태계와 같이 직접 접촉할 것이라는 기대 없이도 그것의 보존과 존재, 개선에 대해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호기금과 같은 환경기금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금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곽승준 외, 2007). 비이용가치(보전가치)⁵⁾는 아름다운 자연자원이나 수질, 동식물, 환경 등이 보전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잠재이용자들이 받는 편익 또는 효용을 말하며, 지식의 축적(stock) 또는 심리적 자산을 뜻하며(Walsh, 1986),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로 구분된다(김사현, 1997, 손호기, 2008). 선택가치(option value)⁶⁾는 어떤 자원을 미래에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보해두는

4) 보전(保全)은 현재나 미래에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인간이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자연계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신의순, 1995: 361).

5) 비이용가치는 자원을 이용하지 않을 때의 가치로 Walsh(1986), Sutherland and Walsh(1985)는 이를 보전가치(perservation value)로 부르고 있다. 보전가치=선택가치+존재가치+유산가치(김사현, 1997: 208-209).

대가로 지불코자 하는 가치 즉,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앞으로 사용하게 될지 모를 사용권을 미리 확보하는 대가로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이다(신의순, 1995). 이 가치는 환경의 개발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개념이다(곽승준 외, 2007). 존재가치(existence value)는 소비자 자신은 현재나 장래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파괴되지 않은 채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여된 가치이며, 유산가치(bequest value)는 그 자원을 미래세대를 위하여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부여된 가치이다.

2.3. 농촌마을경관 보전가치 에 대한 연구동향

김광임(2006)의 농촌경관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경기도 지역을 사례로 추정한 결과에서 연령, 가족 수, 설문내용의 이해도, 농촌경관의 보존 필요성, 농촌경관의 파괴 정도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제시금액을 지불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정(+)의 영향을 미친 변수로 추정하였고, 가구당 지불의사를 제시금액의 평균값 수준에서 산출하면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105,324원/년으로, 이를 경기도 전체 가구 수로 환산하면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3,576억 원/년으로 농촌경관보전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일부지역으로 한정된 표본을 추출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
- 6) 선택가치(Option Value)는 Cicchette, Freeman(1971)이 처음 도입한 방법이다. 선택가치가 미래자원 이용에 있어서 불확실할 때 위험부담을 싫어하는 개인에게는 항상 양성 반응이 나타나며, 여기서 양(正)반응이라면, 소비자는 이용편익에 덧붙여 선택가치라는 편익을 향유하기 때문에, 자연공원의 총편익을 기존의 이용자편익만으로 환산하는 것 그 자체는 결국 자연공원의 총편익을 과소평가하는 과오를 범하게 만든다. 반대로 만약 그 값의 부호가 음(負)이라면 이용자편익을 고려한 공원의 총편익 추정치는 과대평가 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사현, 1997).

〈표 3〉 기타 국내의 보전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연구자	방법 및 분석	연구의 방향	연구 결과
김광임(2006)	CVM (양분선택질문형/ 로짓모형)	농촌 경관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액 추정	가구당 월평균 WTP는 8,777원/월, 연간 WTP는 105,324원/년, 경기도 전체 가구 수 로 환산한 WTP는 3,576억 원/년으로 추정됨
고성보(2007)	CVM (개발형/Tumbull 의 분포무관모형)	제주발담의 경관 직불제도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경관가치 추정	제주발담의 1m당 경관가치에 대한 평균 WTP는 3,001원, 경관가치 대상여부를 고 려하지 않은 연간 제주발담의 경관가치는 평균 663억 원으로 추정됨
강영은· 안동만(2009)	CVM (양분선택질문형/ 로짓모형)	전통민속마을의 경제적 가치 평가	연간 27,430원/년, 연간 지불의사는 43,578 백만 원으로 추정됨
유진채· 이희찬(2003)	CVM	농촌사회의 경관기능 유지에 대한 가치	농촌(1,432)억, 도시(1조 1,811억)으로 총 1 조 3,243억 원으로 추정됨
임형백· 이성우(2004)	CVM	조건불리지역 농업·농촌	가구당 연평균 WTP는 91,437원이며, 90% 신뢰구간에서 전체편익은 1조 2,370~1조 3,802억 원으로 추정됨
Quah, Tan (1999)	CVM (개발형)	싱가포르 동해안 공원 풍경에 대한 가치 추정	풍경을 보전에 대한 WTP는 총 146만 싱가포르 달러로 추정됨
Amimejad, Khalilian, Assareh, Ahmadian (2006)	CVM (양분선택질문형/ 로짓모형)	이란 북쪽 산림에 대한 존재가치 추정	산림에 대한 존재가치는 가구당 월 평균 2.51달러 혹은 가구당 연 평균 30.12달러로 추정됨
Pruckner (1995)	CVM (개발형)	오스트리아 내 농업경관경작에 대한 지불의사측정	1인당 하루 평균 Mean WTP는 9.20 오스트 리아 쉐링, Median WTP는 3.50 오스트리 아 쉐링으로 각각 추정됨.

고성보(2007)는 제주발담의 길이를 추정한 결과 총발담의 길이 22,108km로, Tumbull의 분포무관모형을 적용하였다. 경관가치 대상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연간 제주발담의 경관가치는 평균 663억 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우수한 제주발담 지역으로 National Trust(공공신탁) 모델을 도입하여 '제주발담 발한 평사기 운동'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강영은·

안동만(2009)는 전통민속마을 7개소를 경제적 가치평가인 CVM(조건부 가상가치측법)을 적용한 결과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전통민속마을의 보전 가치 평가는 가구별 연간 27,430원/년, 연간 지불의사는 43,578백만 원으로 추정하였고, 이를 현재 문화재청이 전통문화마을 보존 및 정비를 위해서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1,939억 원(연간 193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전통가옥정비, 조경정비, 관람객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조성 등)과 비교해서 보면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농촌체험마을경관의 보전가치에 대한 실증분석

3.1.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방문자 특성

농촌체험 마을경관보전을 위해 가상적 가치평가방법으로 최근 제4회 도농교류(농촌사랑)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주 세심마을을 연구대상지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중에 세심마을에 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인식정도와 농촌체험에 대한 만족도, 농촌체험마을 경관의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와 지불의사금액 추정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검색과정을 거쳐 유효표본 121매를 최종 확정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성별은 남성 52명(43.0%)이 여성 69명(57.0%)보다 다소 적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조사기간 중 어린이 동반인솔자 대부분이 여성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50~59세가 전체의 2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39세, 40~49세가 각각 24.8%의 순으로 나

〈표 4〉 농촌체험마을 방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 명, %)

변수	구분	분포	변수	구분	분포	
성별	남	52(43.0)	월소득 (본인)	100만 원 미만	7(5.7)	
	여	69(57.0)		100~199만 원	9(7.5)	
	계	121(100.0)		200~299만 원	28(23.1)	
연령 (세)	20 미만	1(0.8)		300~399만 원	25(20.7)	
	20~29	18(14.9)		400~499만 원	20(16.5)	
	30~39	30(24.8)		500~599만 원	18(14.9)	
	40~49	30(24.8)		600만 원 이상	14(11.6)	
	50~59	36(29.8)		계	121(100.0)	
	60 이상	6(5.0)		직업	학생	5(4.1)
	계	121(100.0)			주부	36(29.8)
학력	~중졸	1(0.8)	전문직		18(14.9)	
	고졸	32(26.4)	자영업		12(9.9)	
	대재	11(9.1)	회사원		37(30.6)	
	전문대졸	18(14.9)	공무원		6(5.0)	
	대졸	48(39.7)	기타		7(5.8)	
	대학원재	3(2.5)	계		121(100.0)	
	대학원졸	8(6.6)	월평균 여가비용	10만원 미만	2(1.7)	
계	121(100.0)	10~49만원		64(53.0)		
거주지	지역민(경북)	27(22.4)		50~99만원	28(23.1)	
	타지역	94(77.6)		100만원 이상	27(22.2)	
	계	121(100.0)	계	121(100.0)		

타났으며, 연령대별 계층 비율이 비교적 적절성을 유지하여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교육수준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대졸이 전체의 3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졸 26.4%, 전문대졸 14.9%의 순으로 나타나, 방문객들이 고학력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 구조는 회사원이 전체 응답자의 3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주부 29.8%, 전문직 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객 월소득 구성비는 200~299만 원 23.1%, 300~399만 원 20.7%, 400~499만 원

16.5%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200~300만 원대의 소득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체험마을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각 항목별 빈도분석과 기술분석(리커트 5점 척도의 평균값 기준)을 실시한 결과, ‘전통적인 농촌마을의 정취’에 대한 질문에서 평균값이 3.61점으로 다른 평가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린 응답자의 비율이 88.4%로 나타나 경주 세심마을은 농촌마을경관의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재방문(평균값 3.425점), 마을 환경시설물에 대한 만족(평균값 3.20점), 공동생활공간의 만족(평균값 3.20점) 등의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74.6점/100점으로 나타나 농촌체험마을로서 만족하고 있음으로 조사되었다.

〈표 5〉 농촌체험마을 방문응답자의 만족항목

(단위:%)

농촌체험마을 만족에 대한 주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	2	3	4	5	5점 척도
전통적인 농촌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1(0.8)	13(10.7)	47(38.8)	31(25.6)	29(24.0)	3.61
농촌체험마을의 공동생활공간들이 전반적으로 만족하다(체험관, 쉼터 등)	7(5.8)	23(19.0)	59(48.8)	27(22.3)	5(4.1)	3.00
농촌체험마을의 환경시설물들이 전반적으로 만족하다(마을안내도, 이정표/해설판, 장승, 솟대 등)	4(3.3)	19(15.7)	55(45.5)	35(28.9)	8(6.6)	3.20
농촌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유익하다	7(5.8)	24(19.8)	61(50.4)	26(21.5)	3(2.5)	2.95
농촌체험마을을 재방문하고 싶다	4(3.3)	15(12.4)	41(33.9)	48(39.7)	13(10.7)	3.42

방문자들의 과거 농촌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것에 대한 분석한 결과 ‘있다’ 56(46.3%), ‘없다’ 65(53.7%)로 나타나 농촌에 거주한 적이 없는 방문자들과 소량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여가와 관광을 목적으로 농촌지역(마을) 방문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있다’ 112(92.6%), ‘없다’ 9(7.4%)로 나타나 대부분이 한번 이상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지인 경주 세심마을을 관광목적지로 선정한 이유에서 ‘훼손되지 않은 농촌마을의 자연환경(마을숲, 하천, 산림, 생태습지 등)’ 51명(42.1%)으로 가장 많은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체험프로그램의 내용(농촌문화체험, 농업체험 등)’ 25명(20.7%), ‘전통적 농촌마을의 생활경관(마을내 환경시설물, 한옥, 돌담, 문화시설 등)’ 18명(14.9%) 등으로 나타났다.

〈표 6〉 농촌체험마을 방문목적

목적지 선택 항목	빈도(%)	목적지 선택 항목	빈도(%)
훼손되지 않은 농촌마을의 자연환경(마을숲, 하천, 산림, 생태습지 등)	51명(42.1%)	체험프로그램의 내용(농촌문화체험, 농업체험 등)	25명(20.7%)
마을의 전통, 역사 문화자원	17명(14.0%)	주민들의 서비스 및 친절함	9명(7.4%)
전통적 농촌마을의 생활경관(마을내 환경시설물, 한옥, 돌담, 문화시설 등)	18명(14.9%)	지형에 순응한 농경지경관	1명(0.8%)

3.2. 보전가치의 영향변수

농촌체험 마을경관 보전가치 지불의사액의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보전가치 지불의사액 추정에 적용하고자 분산분석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과 보전가치 지불의사액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성별과 관련하여 보전가치 지불의사액과 어

면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방문자가 많으나 실제 보전가치 평균 지불의사액은 남성이 153,375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간 방문횟수는 1회 방문자가 가장 많았으나, 실제 보전가치 평균 지불의사액은 유경험자에 의해 높이 측정되었다. 체제기간은 기간이 늘어날수록 보전가치 평균 지불의사액은 적게 측정되었고, 대부분이 1~2일 이내에 체제기간을 두는 것으

<표 7> 변수별 지불의사액과의 관련성 분석

변수별		표본수	평균 지불의사액	F	유의확률
성별	남성	40	153,375	4.210	0.043
	여성	46	58,293		
	소계	86	102,517		
연간 방문횟수	1회	29	34,568	7.557	0.000
	2회	17	82,529		
	3회	12	152,083		
	4회	6	24,333		
	5회	3	120,000		
	6회 이상	11	-		
	소계	78	105,852		
체제기간	1일	45	88,055	2.995	0.008
	2일	26	118,730		
	3일	5	65,400		
	4일	3	46,666		
	5일 이상	7	-		
	소계	86	102,517		
월평균 여가비용	50만 원대	18	54,611	14.781	0.000
	30만 원대	16	58,875		
	10만 원대	10	47,400		
	20만 원대	10	35,200		

유의확률 : P<0.05

로 나타났다. 월평균 여가비용은 50만 원대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실제 보전가치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30만 원대가 58,875원으로 가장 많이 측정되었다. 여가비용은 많이 측정될수록 지불의사금액도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3.3. 보전가치의 추정 및 영향요인

농촌체험마을경관 보전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성별(Gender), 월평균여가비용(Leisure Cost), 방문횟수(Vist), 체제기간(Duration Of Staying)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는 보전가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로 설정하였다. 보전가치(WTP)는 선택가치(WTPopt), 존재가치(WTPext), 유산가치(WTPbqt)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분석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WTP = f(\text{Gender}, \text{Leisure Cost}, \text{Vist}, \text{Duration})$$

농촌체험마을경관 보전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의 정보 미비점으로 인해 가치를 왜곡 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화경관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또는 미래 잠재이용자라 간주하고 무작위로 선택하여 직접면접을 조사하였다. 설문문항에서 중점을 둔 조사항목으로 보전가치의 연간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도출하였고, 마을경관 현대화에 따른 소요비용의 지불의사를 가상적 상황을 제시하여 기부/복권제/시설물유지관리 및 체협료 등의 공공비용 형태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예' 와 '아니오'라는 이분선택변수(Dichotmous Variable)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총 보전가치의 연간 평균 지불의사액을 가지고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에 대해

각각 가치비율(%)로 응답하도록 하여 보전가치가 100%가 되도록 하였다(손호기, 2008).

먼저 농촌체험 마을경관의 자원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체험마을의 지붕·담장 개량, 마을숲·시냇가의 축소, 주거·농경지·산림경관 등을 환경개선과 정비, 경제적 목적인 체험시설 및 소득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부 현대화되거나 축소·변경할 경우’ 방문객들의 현대화를 위한 찬성과 반대경우를 물은 결과, 찬성 55명(45.5%), 반대 66명(54.5%)으로 반대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관광 같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마을단위사업이 농촌 마을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 표준화하여 이루어지는 하드웨어적인 시설배치에서 오는 부작용과 농촌이라는 우리나라 향수와 같은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공간을 경제성 논리에 입각하여 훼손·변질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역주민과 방문객에 따른 추가조사가 요구된다.

가상적 가치평가방법(CVM)은 응답자의 의사와 능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각종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전가치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그 편의를 줄이고자 하였다. 농촌체험마을경관의 총 보전가치에 대해 최저 100원~100만 원 이상의 38단계로 지불의사금액을 제시 한 결과 연간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102,517원으로 나타났으며, 선택가치의 평균금액은 37,624원, 존재가치의 평균금액은 34,856원, 유산가치의 평균금액은 30,073원으로 나타났다. 총 보전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선택, 존재 및 유산가치의 구성비는 각각 36.7%, 29.3%, 34.0%로 분석되었다. 선택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농촌체험마을을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옵션)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기존의 연구자료와 달리 농촌체험마을은 관광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즉 위락적 자원의 요소가 강하여 선택가치의 비중을 높은 것으로 사료되

며, 또한 연구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경주 세심마을은 독락당과 옥산서원을 보유하고 전통놀이문화를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어 역사·문화적 요소를 지닌 농촌체험마을이라 할 수 있어 유산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농촌체험마을경관에 대한 연간 평균 지불의사 보전가치별 응답자 현황

연간 평균 지불의사액(원)	가치별 응답자 수의 분포(명)			
	총 보전가치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
0	0	1	2	2
100~999	1	10	9	6
1,000~2,999	6	1	1	2
3,000~4,999	2	11	20	16
5,000~9,999	10	17	29	21
10,000~29,999	16	2	2	2
30,000~49,999	12	3	1	2
50,000~69,999	13	14	8	16
70,000~99,999	3	11	10	12
100,000~399,999	17	11	1	2
400,000~699,999	2	2	2	2
700,000~999,999	0	3	0	2
1,000,000이상	4	0	0	1
평균가치(원)	102,517	36,624	30,037	24,856
보전가치비율(%)	100.0	36.7	29.3	34.0

4. 결론 및 시사점

농촌지역에 농업과 같은 생산공간 이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그 지역의 잠재력은 다양한 생물종과 서식지의 현존, 새로운 서식지와 기후적, 지형학적 상태를 재생성할 수 있는 수용력과 같은 생태적, 지리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으며, 최근에는 농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을 바탕으로 한 농촌체험마을에 농촌환경·문화를 유지하면서 지역민들의 참여도 높이고 농외소득을 높이고자하는 사업들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들로 인해 농촌마을경관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농촌체험마을경관을 보전하고 유지하기 위한 당위성을 마련하고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전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경주 세심마을을 연구대상으로 농촌체험 마을경관 보전에 대해 지불하고자하는 보전가치는 총 102,517원(100.0%)으로, 농촌마을의 경관을 있는 그대로 향후 어느 때라도 이용할 수 있음을 보장받기 위한 선택가치 37,624원(3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하는 유산가치 34,856원(34.0%), 있다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존재가치 30,073원(29.3%)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체험마을 경관 보전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성별(GENDER), 월평균여가비용(LEISURE COST), 방문횟수(VIST), 체제기간(DURATION OF STAYING)과 지불의사금액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함수식으로 설정하였다.

$$WTP = f(\text{Gender}, \text{Leisure Cost}, \text{Vist}, \text{Duration})$$

이를 CVM 기법으로 추정한 결과, 방문객의 연간 평균 WTP는 102,517 원/년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김광임(2006)에서 언급된 경기도 지역의 농

촌경관 보전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금액인 105,324원/년/가구와 비슷한 금액으로 추정되었지만, 이는 경기도 지역의 가구당(평균3.9명) WTP로 (1인당 27,006원/년), 본 연구의 방문객 1인당 WTP가 102,517원/년과 비교해보면, 약 4배 정도의 금액비율로 추정된다. 이는 본 연구대상지인 경주 세심마을이 역사와 전통을 소재로 한 농촌체험마을로서 농촌체험마을 경관보전을 위해 금전적 기부·복권제·시설사용료·체험료·숙박료 등 공공비용의 의미가 부여되어 일반적인 농촌경관의 보전가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보다 높게 측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가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의 경험적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농촌체험 마을경관의 자원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체험마을이 일부 현대화하거나 축소·변경할 경우에 방문객들에게 찬성과 반대를 물은 결과, 찬성 55명(45.5%), 반대 66명(54.5%)으로 반대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농촌마을단위사업이 농촌마을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 표준화된 농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해 지원된 재원을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우선시 배치에서 오는 부작용과 농촌이라는 우리나라향수와 같은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공간을 경제성 논리에 입각하여 훼손·변질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분리된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농촌체험마을 경관계획 및 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경관의 환경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경관지표가 요구된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농촌관광활동을 통해 훼손 또는 변화될 수 있는 환경자원으로 농촌경관계획 및 농촌체험마을단위 사업에서 기초자료로 측정이 필요한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선택가치와 유산가치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때, 농촌경관의 전통성과 역사성, 문화성

을 보유하고 있는 주거생활과 같은 문화생활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정책도 요구되며, 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농촌체험마을의 일부 국한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방문자 지불의사금액만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농촌체험마을의 유지관리적인 차원에서 소요되는 보전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실제 운영·관리되는 비용과 농촌체험마을이 위탁자원으로서 보전가치를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인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대하고자한다.

■ 참고 문헌 ■

- 강영은, & 안동만. (2009). CVM을 이용한 전통민속마을의 보전가치평가 연구. *농촌계획* 15(4).
- 고성보. (2007). 경관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제주돌담의 경관가치평가. *농촌계획* 13(4).
- 고선영. (2008). 농촌체험마을의 자산과 유형. *한국지역지리학회* 14(4).
- 곽승준 외. (2007). 환경·자원의 경제학적 접근. 산문출판사: 122-123.
- 김광임. (2006). 농촌경관보전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환경정책* 14(2).
- 김나영. (2010). 마을특성에 따른 농촌체험 방문객의 중요도-만족도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사현. (1997). 관광경제학신론. 일신사.
- 김상범, & 이상영. (2006). 농촌계획을 위한 공간별 주요경관요소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2(3).
- 나란희. (2010).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에 대한 주민의식과 성과분석.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농림수산식품부. (2009). 4대강 물길따라 흐르는 농촌희망 금수강촌만들기. 합동보고자료집.
- 손호기. (2008). 문화경관유형에 따른 관광영향과 보전의식.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의순. (1995). 자원경제학. 박영사.
- 조재환. (2003).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 선호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0(3).
- Amirnejad, H. and Khalilian, S. and Assareh, M. H. and Ahmadian, M (2006). Estimating the existence value of North Forests of Iran by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Ecological Economics*. Vol. 58, pp. 665-675.
- Pruckner, G. J. (1995). Agricultural landscape cultivation in Austria: An application of the CVM. *European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22, pp. 173-190.
- Quah, E. and Tan, K. C. (1999). Pricing a scenic view: the case of Singapore's East Coast Park.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Vol. 17, No. 4,

pp. 295-303.

Walsh Richard G. (1986), *Recreation Economic Decisions Comparing Benefits and Costs*. Venture Publishing, Inc.

Wiendu Nuryanti. (1996). Heritage and Postmoder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3(2):249-260.

논문투고일: 2010. 6. 13
1차수정일: 2010. 7. 25
2차수정일: 2010. 11. 15
게재확정일: 2010. 12. 10